

외국 출생 영국 거주자 1천만 명

잉글랜드 웨일즈 지역 조사 ... 10년 만에 250만 명 늘어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의 외국 태생 인구가 10년 만에 250만 명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국 통계청(ONS)의 지난해 3월 21일 인구 총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이 지역 인구 5,959만 명 중 외국 태생은 1천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인도 태생은 92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 루마니아는 같은 기간 가파른 증가세(576%)를 보이며 53만9천 명을 기록했다.

국가별 인구 비중은 인도, 폴란드, 파키스탄, 루마니아, 아일랜드, 이탈리아,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독일 그리고 남아프리카공화국 순이었다. 아일랜드와 독일은 감소했다.

런던은 외국 출생 비율이 10명 중 4명(40.6%) 꼴로 가장 많았다. 반면 웨일즈와 잉글랜드 북서부 지역은 14명 중 1명 (6.9%) 비율을 보였다.

통계청이 함께 발표한 평균 가구 규모는 2.4명으로 10년 전과 같았다.

전체 30%는 1인 가구였다. 영국 전체 인구는 6월 말 현재 약 6천700만명으로 집계됐다.

영국의 인구총조사는 1801년에 시작됐으며 매 10년마다 이뤄진다.

한편 한국 통계청(KOSIS)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영국 거주 재외동포수는 총 36,690명이며 이 중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22,011명, 일 반체류자 및 유학생은 14,679명으로 조사됐다.

편집부



탈북민 인권문제 고발합니다 지난달 20일 (일) 영국 국회에서 북한 인권 국제회의가 개최됐다. 이 행사에 초청받은 재영탈북민총연합회 이정희 회장과 임원들은 열악한 북한의 인권 상황과 중국내 탈북민들의 현실을 알리고 전문가들과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영국 정부의 피오나 브루스 국회의원(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위한 특사)이 후원한 이번 회의에는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재영탈북민 티모시 조, 박지현 북한인권운동가 등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했다. <기사 및 사진 제공: 재영탈북민총연합회>

영국 현충일 '리멤버런스 데이' ... 올해는 13일

영국에서 11월이 되면 텔레비전에 나오거나 거리를 지나 는 사람들 가슴에 달린 조그맣고 빨간 꽃을 쉽게 볼 수 있다.

'전몰장병 기념일'이라고 번역되는 Remembrance day (리멤버런스 데이)가 다가오기 때문이다. 이날은 우리나라의 현충일과 비슷한 성격의 국가적인 기념일이다. 특히 1·2차 세계대전 등에서 전사한 순국영령들을 기리는 날이다. 해마다 11월 11일 혹은 가장 가까운 일요일에 기념식을 가지며 'Remembrance Sunday'로 부른다. 올해는 13일에 치른다. <관계기사 2면> 편집부

- 가이 폭스데이
소방서가 가장 바쁜 날 11월 5일
» 21
- 윤유리, 영국 세법 이야기
세무상 영구 거주지 규칙
» 22
- 아이러브스테이지
"통인동 128번지" 영국 쇼케이스 공연
» 23
- 전공수 목사
마을이 걸어간 길을 걸으며
» 24
- 권석하, 두터운 유럽 연재
다채롭고 풍요로운 리옹 ②
» 38

BH1 Accounting
영국공인회계사 BH1 회계법인
법인설립 | 법인 & 개인 세무신고
Payroll 서비스 | 컨설팅
Address: V307, Vise Studios, 1-45 Durham Street, Vauxhall, London, SE11 5JH
Phone: 020 8176 0793
Email: admin@bh1accounting.co.uk

GREEN FARM
'푸른농원' 상표를 확인하세요!
떡, 콩나물 전문
☎ 07379 960 460 / 020 8417 1123

오랜 전통과 신뢰 SINCE 1988
원한의원 British Acupuncture Council
원장 김원규 한약/침/보약/뜸
MRCHM 한의사 MBACC 영국국가공인 침구사
020 8949 3888 / 07710 627 333
56 Cambridge Rd, New Malden KT3 3QL

ggm 지지엠
♥맛있는... 직접만든 순대, 순대국
☎ 020 8337 7999

Soldeli
Japanese Sushi and Fine Dining at Home
생선 횡감, 초밥용 수산물과 각종육류, 집앞까지 매일 배송. 영국 전역.
£70 이상 무료. 주 6일 배송. 참치, 방어, 연어, 일본 와규, 성게알, 일본술, 전복 등.
soldeli.co.uk

KIB보험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 브로커 Since 1992
자동차·집·회사·의료·상업보험 등
JEIB Group : Lloyd's broker & FCA 등록
www.kib.co.uk
020 7847 8630/1 info@kib.co.uk
3rd Fl, 14 Austin Friars, London EC2N 2HE

워크비자/스폰서쉽 18면 참조
지사설립/주재원비자
결혼비자/영주권/시민권
공인 영국비자 수속기관
영국이민센터
☎ 079 4450 5952 (왓츠앱)
ukemin@hotmail.com / www.ukimin.com
카톡 ID: johnhsuh (문자 및 음성통화 상담가능)

대한보험 차·집·Shop 모든 상업보험 FCA 등록업체
On-Line 보험? 대한보험과 비교하시죠!
한국 무사고 경력 100% 인정
☎ 0208 715 0120
jinnydaehan@gmail.com
63 High St, New Malden KT3 4BT

C&C Express
국내·해외 이사·Delivery
안락 & 커머셜 (수출·수입)
07740 283 409
07833 671 027

트리스톤 정육점 & 정육식당
THE TREE STONE
착한 가격/도소매 더 다양하고 더 신선한
☎ 020 8942 5756
71 High St., New Malden (백드날드 옆)

(3면 참조)
CHUNG DAM
청담
London · Soho

BLUEBIRD Residential
020 8949 2424
info@bluebirdresidential.com
카카오톡 채널 검색아이디: ukbluebird

한국으로 물건을 보내려면
세관/유럽 배송 문의 환영
www.lpouk.com
런던우체국
020 8569 2588 / 0789 790 2044

A3 MOTORZ
튜닝 / 타이밍벨트 / 오일교환
타이어 교환 · 펑크 / 전기문제
New Malden KT3 3NE
☎ 07540 142 017
기술자 염관식

정직하고 성실한
보라여행
항공권 & 여행 전문
☎ 020 8241 7987 / 8949 1279
07804 779 401
www.boratravel.com

범양 익스프레스
Pumex International
안티 당일 배송 · 포장 · 픽업
일반 특송 · 구매 · 배송 대행
☎ 07960 879 234 24시간 상담

범죄경력증명서, 가족/혼인/출생증명서,
운전면허증 갱신/재발급, 학력증명서,
국제운전면허증, 기타 한국민원서류 <150여 개국>
(7면 참조)
한국통합민원센터(주) 발급 번역 공증 +82-2-747-2180
allminwon.com 외교부/대사관 인증 +1-312-448-6160

하나로 익스프레스
(전세계 특송 전문)
-항공/해상/창고보관/이사-
☎ 020 8949 6923
07940 554 685
EU/UK 정식 수출·입면허 허가업체(EORI No. 보유)

영국비자센터 www.imin4u.com 영국정부공인 No. F201601020
스폰서쉽/취업비자/영주권/ 시민권/사업비자/ 슬랩/배우자 비자/학생비자/
info@imin4u.com
020 3371 1033, 07886 665 921

요즈음 가슴에 꽃을 다는 이유는?

순국영령 기리기 위해 매년 11월 둘째 일요일 기념식 가져 ... 올해는 13일 (일)

영국에서 11월이 되면 텔레비전에 나오거나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 가슴에 달린 조그맣고 빨간 꽃을 쉽게 볼 수 있다.

'전몰장병 기념일'이라고 번역되는 Remembrance day (리멤브런스 데이)가 다가오기 때문이다.

이날은 우리나라의 현충일과 비슷한 성격의 국가적인 기념일이다.

특히 1·2차 세계대전 등에서 전사한 순국영령들을 기리는 날이다.

해마다 11월 11일 혹은 가장 가까운 일요일에 기념식을 가지며 'Remembrance Sunday'로 부른다.

올해는 13일에 치른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1918년 11월 11일 11시를 기념하는 것으로 양귀비 꽃을 가슴에 달기 때문에 '포피 데이(Poppy day)'라고 한다.

특히 1차대전 당시 격전지를 찾은 존 맥크레이 대령이 전쟁터에 피어난 양귀비 꽃을 보고 '플랜더즈 전장에서'라는 시를 쓴 후 캐나다와 프랑스, 영국 등에서는 양귀비를 전몰용사의 상징으로 삼고 있다.

기념식은 런던 시내 정부 주요 건물 밀집지역인 Whitehall 거리 중앙에 세워져 있는 충혼탑 Cenotaph에서 매년 여왕을 비롯한 왕실가족은 물론 총리 및 전 각료가 참석한 가운데 2분간의 묵념과 함께 엄숙한 분위기로 진행된다.

기념식에는 가슴에 훈장을 단 퇴역장성, 예비역 군인들을 비롯해 어린이

보이스카웃, 걸스카웃대원 대표들도 항상 참여한다.

영국 전역에서 종이 Poppy flower(양귀비꽃)를 팔아 모은 수익금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의 유족들을 위해 사용된다. 편집부



플랜더즈 전장에서

존 맥크레이

플랜더즈 들판에 양귀비꽃 피었네

줄줄이 서있는 십자가들 사이에

그 십자가는 우리가 누운 곳 알려주기 위함.

그리고 하늘에는 종달새 힘차게 노래하며 날아오르건만

저 밑에 요란한 총소리 있어 그 노래 잘 들리지 않네.

우리는 이제 운명을 달리한 자들.

며칠 전만 해도 살아서 새벽을 느꼈고 석양을 바라보았네.

사랑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였건만

지금 우리는 플랜더즈 들판에 이렇게 누워 있다네.

원수들과 우리들이 싸움 포기하려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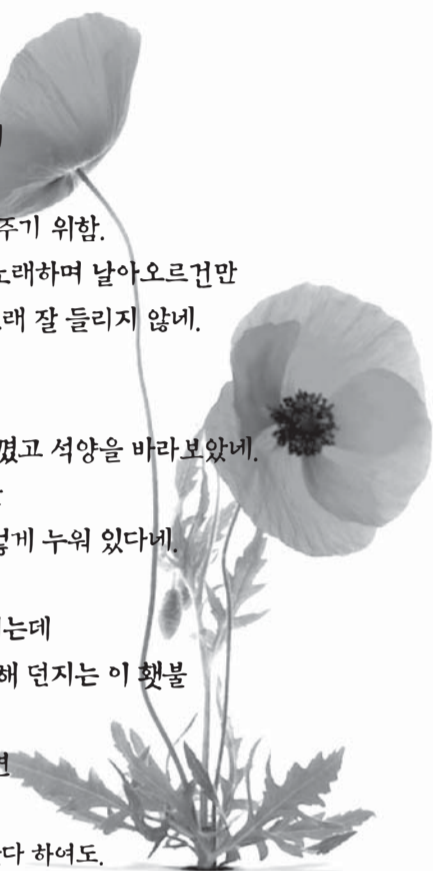
힘이 빠져가는 내 손으로 그대 향해 던지는 이 횃불

그대 붙잡고 높이 들게나.

우리와의 신의를 그대 저 버린다면

우리는 영영 잠들지 못하리.

비록 플랜더즈 들판에 양귀비꽃 자란다 하여도.



<남북대담>에 초대합니다

남과 북이 더불어 사는 런던에서 열리는 동살

주영국대사관과 민주평통 영국협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남북대담 '남과 북이 더불어 사는 런던에서 열리는 동살' 행사를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재영동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런던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탈북민이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출신과 남한출신이 교류하고 더불어 사는 유일무이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살아왔던 땅이 남과 북으로 다를 뿐, 영국에서 이민족, 소수민족으로서 정착하기까지 느낀 소외, 이제 스스로의 정체성을 고민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그 차세대를 위해 할 수 있는 남북한 출신 어른들의 역할에 대해 나누며 생각하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올해로 제3회를 맞는 남북대담이 11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한인회관에서 열립니다.

강지민(탈북인총연합회 교육부장) 씨, 김미연(런던한겨레학교 학부모회장) 씨, 문효심(민주평통영국협의회 여성분과장) 씨, 방성현(런던한국학교 역사교사) 씨가 대담자로 참여하여 발제하

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습니다.

이번 대담에는 한 단체를 대표하는 의견이 아닌, 평범한 일상의 세월을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남북한 출신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 관심과 열정으로 현장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특별히 초대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을 모시고자 한인회관에서 주최하는 <남북대담>은 11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시작합니다. 본 대담이 시작되기 전인 12시 45분부터는 답소를 나누실 수 있도록 다과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는 세심한 정성으로 마음을 다해 준비한 특별한 선물을 드립니다. 포스터 위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참석 여부를 알려주실 수 있고, 사전 질문도 하실 수 있는 링크로 연결됩니다.

'동살'은 해돋이 전 동이 트면서 푸르스름하게 비치는 빛줄기를 뜻하는 고유어입니다. 새날에 떠오르는 동살이 더욱 넓게 퍼질 수 있도록 함께 자리하셔서 귀한 뜻을 더해주시겠습니까?

11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 / 한인회관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런던한빛교회에서
다음과 같이 임직식을 가지려 합니다.
늘 기도와 사랑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정중히 초대하오니 오셔서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시 : 11월 20일 (주일) 오후 2시
- 장소 : 런던한빛교회
St. Paul's Church,
Queen's Road, Kingston, KT2 7SF
- 문의 : 07525 465 558 (김동현 장로)

- 장로임직 : 김태운 박래승 이준엽 정연호
- 안수집사임직 : 강석한 김종균 권태섭 임석범
조진복 최용준 최준상
- 권사임직 : 김영혜 이정희 이재원 임미란



담임목사 **김동윤**

런던한빛센터 122 London Road, Kingston, KT2 6QJ | 020 8546 3600
hanbeetcentre@gmail.com | www.hanbeet.org

수내, 느슨한 의료 시스템 손본다... 병원 노쇼에 벌금 부과

진료 예약부도, 매년 1천500만 건... 의료진 시간·비용 피해 커
영국 의사노조 “무상의료체계 가치 훼손, 취약 계층이 피해” 반대

리시 수내 영국 신임 총리가 병원 진료를 예약하고 당일 방문하지 않는 ‘노쇼’(No-show·예약 부도) 환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이는 수내 총리가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의료·건강보험 제도 개혁안 중 하나이지만, 대국민 의료 서비스가 위축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6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날 총리실은 진료를 예약해놓고서는 사전 통지 없이 진료 당일 병원에 오지 않는 이들에게 벌금 10파운드(약 1만6천 원)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첫 노쇼까지는 괜찮지만, 두 번째부터는 벌금을 내야 한다.

총리실 대변인은 “수내 총리는 영국 납세자가 무상의료체계인 국민보건서비스(NHS)로부터 최고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수내 총리는 지난달 25일 다우닝가 집무실 앞에서 취임 후 첫 연설을 하며 “우리는 수십억 파운드를 들여 코로나19와 싸워왔다”며 “NHS를 보다 강력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수내 총리는 보수당 대표 경선에서 리즈 트러스 전 총리와 맞붙었을 때부터 이 공약을 자신의 대표적 보건 정책으로 내세웠다.

노쇼 환자 때문에 일반의(GP)가 시간이나 비용 측면에서 큰 피해를 보는 만큼, 페널티 부과로 예약부도를 낮춰 의료



서비스를 더 원활하게 제공할 것이라는 취지다.

실제 영국에서는 일반의 진료에서 연평균 1천500만여 건의 노쇼가 발생한다. 예약 환자 20명 중 1명꼴로 사전 통보 없이 진료를 취소하는 셈이다.

특히 2019~2020년에는 외래 환자 진료 총 1억2천500만 건 중 800만 건이 노쇼로 누락됐다.

안 그래도 격무에 시달리며 시간에 쫓기는 일반의가 매년 120만 시간을 낭비하게 되며, 연간 2억1천600만 파운드(약 3천555억 원)에 이르는 피해액은 풀타임 근무하는 정규직 일반의 2천325명의 연봉과 맞먹는다는 것이 수내 총리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같은 계획을 두고 영국 의료

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필립 밴필드 영국의학협회(BMA)의 사노조 회장은 “BMA는 약속을 어긴 환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에 단호하게 반대해왔다”며 “이는 필요한 모든 이에게 무료 진료를 제공한다는 NHS의 기본 원칙을 훼손한다”고 밝혔다.

밴필드 회장은 노쇼 환자를 처벌하기 보다는 이들이 진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이유를 먼저 고려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자를 재정적으로 처벌하면 지역 사회에서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계층이 영향을 받는다”며 노쇼 벌금이 “이들 환자의 재예약을 막고 건강 불평등을 악화해 결국 NHS에 들어가는 비용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London Parcel Office

London to Korea Special Delivery Service

Royal Mail은 모르지만 혼자 '로얄 메일'과 경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런던 우체국

www.lpouk.com

10개 지점 안내



한국으로 안전하고 정확하게 보내드립니다. 10개 지점 중 가까운 지점을 찾으세요.

- ▶런던남쪽 뉴몰든 High St. - 서울플라자 1호점
- ▶런던시내 토티엄로드 로드 - 서울플라자 11호점
- ▶런던북쪽 Golders Green - 서울플라자 4호점
- ▶코벤트리 서울플라자
- ▶맨체스터 Eat Goody Cafe
- ▶옥스포드 서울플라자
- ▶버밍엄 서울플라자
- ▶브라이튼 Pilgrim Centre
- ▶본머스 Korean Grill
- ▶브리스톨 DANO Mart (단오 마트)

세관 / 유럽 배송 문의 환영 www.lpouk.com
020 8569 2588 / 0789 790 2044



세탁·수선 전문점

한인 경영 세탁소 토탈클린

세탁-의류, 커튼, 이불 등 명품의류 수선 전문

020 8949 7999 일번지정육점 바로 옆
115 Kingston Road, New Malden KT3 3NX

2022

KOREAN GOODS POP UP STORE

COME & CATCH THE HALLYU

K.FOOD K.BEAUTY K.POP

Hello

Hello K.

48 Regent Street,
Piccadilly Circus
London W1B 5RA

10 - 13 NOV 2022

Thu 11am - 19pm
Fri & Sat 9am - 19pm
Sun 10am - 16pm

kotra

사역자 청빙

레인즈파크 한인교회에서 사역자를 다음과 같이 청빙합니다.

- 사역 : 교육부서
-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추천서
- 서류마감 : **11월 20일 (일)**
- 제출처 : jdsk6066@hotmail.com
- 담임목사 : 박종도

Why don't you come and surf K-wave?

kotra London will launch a Pop-up Store on K-Wave at the heart of London, Piccadilly Circus. Immerse yourself into the K-food, K-beauty, K-pop and much more XOXO!
Come & Catch Hallyu

Free Nail art experience!

*To accommodate as many people, the serving time will be limited to 30 minutes per person
Free nail art experience with Milly And Jin Nails & Acupuncture

£5 voucher to spend either Bunsik and Yori worth when you spend £50 or over in one transaction. # Voucher collaboration with YORI and Bunsik

KTF Evening 성황리 출범식 마쳐...

지난 10월 25일 뉴몰든 하이스트리트에 위치한 The Place에서 Korea Town Foundation(KTF)의 출범식이 개최됐다.

출범식은 KTF 프로젝트 설명, 구의원들 참여 및 지원 스피치, Q&A, 후원 및 지원 안내와 식사 및 네트워킹 순서로 진행되었다.

지난 6월 영국 지방의회 선거에 대한 지원 및 후원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한 이번 행사는 KTF 프로젝트 설명을 남한출신 박사과정 화학공학도인 이 찬씨가 영어로, 북한출신 장일혁 수습변호사가 한글로 설명해, 뉴몰든의 남·북한 평화 통일촌 이미지를 한층 더 고양시켰다.

뉴몰든이 소속된 킹스톤구 의원인 박 엘리자베스 의원이 뉴몰든 프로젝트들에 관한 주요의 사결정에 참여할 Andreas Kirsch 킹스톤구 자민당 대표를 비롯하여 10여명의 구의원들, 단체장들을 소개하고 이들이 직접 KTF 참여 및 지원의사를 직접 밝히도록 했다.

이 날 행사를 주관했던 김동성(Robert Kim) 의원은 KTF 프로젝트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주민들과 한인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뉴몰든 주민들과 후원자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에, 유럽 최대 한인 커뮤니티인 뉴몰든의 주민대표로 선출되었는데, 이 선거 후원과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선거공약인 Korea Town 건설을 지속가능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을 킹스톤구 주요 인사들께 설명드리고 참여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적극적인 지원의사도 확인했습니다. KTF 출범에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들이 마무리되는대로 본격적으로 Korea Town



Korea Town Foundation's JustGiving page

Project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의원은 “KTF의 성공을 위해서는 특히 한인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도움이 필요하다며, KTF가 기존 한인단체들을 대체하는 것 아닌가하는 걱정이 있다고 들었는데, KTF의 프로젝트를 보면 알듯이, 현 5개의 프로젝트인 전쟁평화기념탑, 한국인 국회의원만들기, British

Korean Business Alliance, Korean Advice Centre, K Hub Centre 는 New Malden에 꼭 필요한 프로젝트들인데, 아직 없는 프로젝트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K Hub Centre에 문화, 예술, 한식, 스포츠, 한류 상품 등 관련, 전시, 홍보, 공연등을 유치해 뉴몰든에 한류인파를 불러 올 좋은 업체들을 발굴 지원해서, New Malden을 세계 최고 한류 Hub으로 만들 계획”이라며, “한국 정부 및 지자체와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위해 열심히 땀 생각이다. 한류뉴몰든을 알리는데 동참해달라”고 신신당부했다.

한편, 그는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발적인 협찬과 후원으로 KTF를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도와준 후원자분들께 감사하며, 이번 행사장소 협소로 참석하고 싶어도 참석 못한 분들께 미안하다며, 다음에는 충분한 스페이스를 확보해 원하는 모든 분들을 모시고, 수준 높은 한류공연까지 곁들여 멋지고 즐거운 KTF Event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연락처 :
robrt.kim@kingston.gov.uk (카운실 관련)
hankookman22@gmail.com (KTF관련)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손쉽게 발급받자

각종 해외 민원서류도 ‘배달의민원’에서 원스톱으로 해결가능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는 특히 해외 이민, 취업, 여행, 미성년자 입국심사 등 해외에서 가족임을 증명할 때 제출하는 서류 중 하나다. 국내 거주자는 가까운 가족관계 등록관에서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해외의 경우 재외공관 방문 또는 우편 신청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또한 온라인 발급도 가능하지만 각종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프린터도 있어야 가능하다.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겠다고 해도 꼼꼼히 체크해봐야 하는 부분도 있다. 우선 발급 대상자 기준으로 발급을 받을 경우, 부(父)와 모(母) 그리고 배우자까지만 확인이 가능하며, 자녀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자녀가 있을 경우 각각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만약 여권 정보가 없을 시에는 한국어 로마자 영문 표기로 발급되어 자칫 자녀와 영문 성이 다를 수 있어 주의를 기해야 한다.

국내외 민원 서류 대행 서비스를 하고 있는 한국통합민원센터(주) ‘배달의민원’ 담당자는 “가족관계증명서의 영문 발급 서비스 진행은 물론 다양한 언어로의 번역 서비스 진행도 하고 있으며,

국내외 어디서든 클릭 한 번, 전화 한 통으로 편하게 발급부터 배송까지 받아 볼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기타 해외 민원서류에 대한 번역 및 공증축적대리, 아포스티유, 외교부인증, 대사관인증 등 모든 절차도 원스톱으로 해결해주는 비대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 세계 150여개 국가를 대상으로 해외 민원서류 발급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통합민원센터(주)는 올해 2022년, 미국에 지사(www.quickquik.us)를 설립하였다. 현재 중국, 베트남, 캐나다 등 지사 설립을 확대 추진하는 등 전 세계로 서비스를 확장해 나아가고 있으며, 2024년 상반기 코스닥 상장을 추진 중에 있다.

(기사 및 사진 제공 : 한국통합민원센터)

이제부터 부동산 관련 문제는 전문가에게! 불필요한 시간낭비 NO!!

단골고객이 많은 부동산

블루버드 레지덴셜입니다

- ✓ 영국 내 최고 오랜 부동산 관리 경험과 전문성
- ✓ 빠르고 친절한 대응
- ✓ 합리적인 비용
- ✓ 주택 렌트부터 관리, 매매까지 부동산 관련 원스톱 서비스!
- ✓ 무료 감정평가(Valuation) 및 Value UP!! 어드바이스
- ✓ 카카오톡 부동산 상담 서비스(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뉴몰든 역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있습니다 (웨이트로즈 맞은편)

Bluebird Residential
020 8949 2424
info@bluebirdresidential.com www.bluebirdresidential.com
17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Y

카카오톡 상담 (검색아이디 relocation)

C&C Express Ltd.

THE PREMIER FREIGHT FORWARDERS

최고의 차별화된 글로벌 물류 서비스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로
편안한 이사가 되도록
씨엔씨 익스프레스가 함께 하겠습니다.



해외이사
국내이사 및 DELIVERY
안틱 & 커머셜
(수출, 수입)



01483 322 505 | WARE HOUSE : VALENTINE FARM (BARN A02),
07740 283 409 | ROSE LANE, RIPLEY, SURREY, GU23 6NE
07833 671 027 | OFFICE : NEW MALDEN
express@urcnc.com

윤유리의
영국 세법 이해하기 34

Revisiting the concept of the domicile

세무상 영구 거주지 (Domicile) 규칙 다시보기



글쓴이 **윤유리**
admin@lexetera.co.uk

약력 : 영국 변호사(Solicitor), 세무사 (CTA), 회계사 (ACMA), MBA

전문 분야 : 사업체 소유주 및 Non-Dom 세무 및 절세 플래닝, 부동산, 주식 등 투자 관련, 고용 임금 관련, 주재원 보수 절세, 영국 진출 기업 세무, 기업 인수 합병과 세무, 부가세 및 HMRC Investigation 대응 등 기업체 및 스타트업 외부 이사, 외부 CFO/CLO 업무 제공

현재 : 로펌 Spencer West LLP (www.spencer-west.com) 세무 파트너

근무 경력 : 로펌 Cubism Law, Laytons LLP, Samsung SDS Europe Limited, British Airways, 아시아나 항공

Legal Disclaimer :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is based on the law current at the date of the article. This article should not be construed as legal advice on any subject matter and you should always consult a professional adviser with your specific tax issues or questions. I disclaim all liability for actions you take or fail to take based on any content of this article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Domicile은 최근 몇 년 동안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새 총리 (Rishi Sunak)의 부인의 Domicile status와 관련하여 언론과 정당 사이에 여러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고 계실겁니다.

이전에 여러번 설명을 드렸지만 Domicile은 복잡한 개념이어서 언론도 종종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대중에게 오보하는 것을 보고 이번 칼럼에서 Domicile의 개념을 다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Domicile은 영국에서 개인이 과세되는 방식뿐만 아니라 개인의 유산이 사망시 어떻게 상속되는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Domicile은 어떻게 결정되며 어떻게 개인의 납세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영국이 Domicile이 아닌 거주자는 송금 기준 (remittance basis)을 선택해 영국으로 송금이 되거나 영국내에서 혜택을 받는 해외 소득 또는 이득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송금 기준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난 과세 연도 9년중 최소 7년 동안 영국에 거주한 non-domiciled 개인의 경우 £30,000, 지난 과세 연도 14년중 12년 영국에 거주한 개인의 경우 £60,000의 일종의 송금기준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또한 영국이 Domicile이 아닌 개인의 영국 이외의 자산에 대해서는 영국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이는 영국이 Domicile이 아닌 개인이 세금 목적상 영국에 영구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 (deemed domicile) 되지 않는 경우 적용됩니다 (아래 참조).

일반법상의 Domicile 규율

Domicile은 거주지보다 더 영구적인 개념이며 국적과 별개의 개념



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은 영구적인 집이나 고향으로 간주되는 국가에 Domicile을 두고 있다고 보아 집니다.

또한 거주지와 달리 개인은 한 번에 하나의 Domicile만 가질 수 있으며 모든 개인에게는 영구 거주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Domicile 국가가 없다고 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

Domicile에는 세 가지 주요 유형 (출생에 의해 주어지는 Domicile, 종속에 의한 Domicile 및 선택에 의한 Domicile)이 있으며 특정 상황에서 개인의 Domicile 국가를 영국이라고 '간주'하는 별도의 규칙이 있습니다.

출생에 의해 주어지는 Domicile (domicile of origin)

개인 출생시 Domicile이 주어지며 대부분의 경우 개인의 domicile of origin은 출생 당시 아버지의 domicile 국가입니다.

종속에 의한 Domicile (domicile of dependence)

개인이 법적 능력이 없고 다른 사

람에게 의존하는 경우, 그의 domicile은 그가 의존하는 사람의 domicile을 따릅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 (16세 미만)의 domicile은 일반적으로 그를 법적으로 부양 하는 사람의 domicile을 따릅니다.

일반적인 예로 미성년 개인의 부모가 출생 당시 혼인한 상태였고 아버지가 domicile을 변경하는 경우, 미성년자는 원래 domicile을 잃고 아버지가 선택한 새 domicile과 일치하는 domicile of dependence를 얻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부모가 결혼한 적이 없는 경우 개인의 domicile은 어머니의 domicile을 따를 수 있습니다.

선택에 의한 Domicile (domicile of choice)

법적 능력이 있는 개인은 어떤 국가이든 선택에 의해 새로운 domicile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Domicile을 선택해 획득하려면 기본적으로 다음의 두가지 요건이 맞아야 합니다:

- 해당 국가에 거주해야 함 ('거주

항목).

- 영구적 또는 무기한으로 그곳에 남을 의도가 있어야 함 ('의도 요소').

Domicile of choice가 성립이 되었는지는 해당 경우의 정황과 사실에 따라 결정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요소가 고려됩니다:

- 거주지;
- 국적 및 시민권;
- 집이 어디에 있는지;
- 가족이 사는 곳;
- 사업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고용이 있는 곳;
- 사회적 연결 고리가 있는 곳 (예: 클럽 회원 및 동아리);
- 개인의 유언과 관련된 법.

간주된 영구 거주지 (Deemed domicile)

세금 목적상 개인은 영국에 영구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Deemed domicile의 개인은 영국 domicile인 개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가 됩니다.

이 Deemed domicile 규율은 원래는 상속세에만 적용이 되었지만 2017년 4월 6일부터 상속세 뿐만 아니라 모든 세법에 적용이 되며 다음과 같은 경우 개인은 영국에 영구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영국 거주자이며 영국이 domicile of origin 이고 영국에서 출생한 개인, 또는
- 과거 과세 연도 20년 중 15년 이상 동안 영국에 거주한 개인.
-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상속세 목적으로 개인은 영국이 domicile이라고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사망일 또는 관련 증여일로부터 3년 전의 어느 때라도 영국이 영구 거주지였던 경우, 또는
- 영국이 domicile인 배우자가 있고 상속세법 1984 (s 267ZA)에 따라 영국 domicile로 간주되도록 선택을 한 경우.

SPENCER WEST
SOLICITORS

Construction & Engineering	Tax
Corporate & Commercial	Immigration
Employment Law	Technology

www.spencer-west.com

파트너 변호사 **윤유리**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uri.yoon@spencer-west.com

Contact Us

Longbow House
20 Chiswell Street
London EC1Y 4TW

+44 (0)20 7925 8080

info@spencer-west.com

김준영의 **ILoveStage**
아이 러브 스테이지

낭독음악극 “통인동 128번지”, 영국 쇼 케이스 공연

〈통인동 128번지〉 공연을 통해 한국의 역사적 비극과 분단에 국제적 세 즉, 영국의 외교 활동과 연결되어 있었음을 이해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양국 간에 상호 이해와 협력을 강화하고 신뢰를 증진시키는 계기로 삼을 수 있으면 합니다.

- 황원섭 우당 교육문화재단 이사 -

한영수교 140주년이 되는 2023년을 앞두고 문화교류가 점점 더 활발히 목격되고 있는데, 민간 차원에서 독립운동을 주제로 한 〈단 한번뿐인 젊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your one and only youth?라는 공연이 11월 17~18일 영국 런던에서 소개됩니다.

한국에서는 〈통인동 128번지〉로 소개된 작품은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일가의 독립운동을 소재로,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유광종)에서 기획, 극단 삼일로창고극장이 제작해 지난 8월 10일, 815광복절 기념으로 공연했던 낭독음악극이지만 여기에 우리가 살고있는 영국과의 안타까운 외교사가 역사적 배경으로 숨어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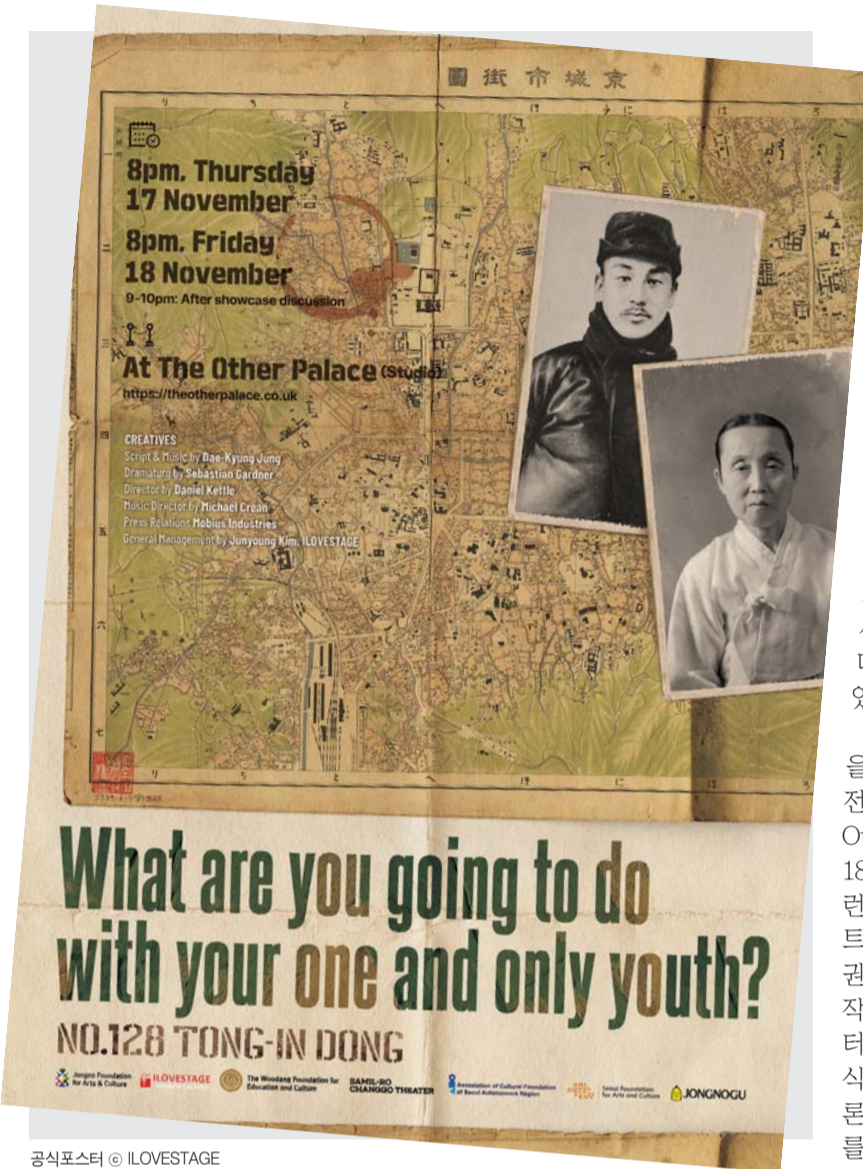
1904년 주영 공사였던 민영돈의 귀국으로 서리 공사가 된 이한응이라는 당시 대한제국의 외교관이 있었는데, 대한제국을 둘러싼 정세가 급속도로 변하고 있어 영국 정부가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한국의 독립과 주권, 그리고 영토 등 5개항을 보장해 주도록 요청했으나 이한응은 약소국의 대표였고 일본의 영향력은 커져만 가고 있어 당시 외무장관인 랜즈다운 경을 비롯한 영국 정부는 냉담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외교권이 빼앗기는 을사늑약을 앞두고 외교관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괴감에 1905년 5월 12일 영국 런던 얼스코트의 자택에서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사후 영국 정부에선 이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영국 정부를 상징하는 장미 문양을 동판으로 새긴 후 관위에 올려 한국으로 보내고 고종은 특명으로 시신을 용인으로 옮겨 안장합니다. 그는 1962년이 되어서야

건국훈장 추서를 받게 되죠.

이번에 소개될 〈단 한번뿐인 젊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우리 영국 교민들에게도 잘 알려지지 않은 이런 역사적 배경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된 외교적인 사건은 1902년 체결한 영일동맹에서 출발합니다. 1905년 8월, 제2차 영일동맹으로 일본의 한국 지배를 외교적으로 보장받고, 9월 포츠머스 조약에 의하여 일본의 한국 지배가 공식적으로 승인되어, 같은 해 11월 을사늑약이 체결된거죠. 이는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자주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온갖 희생과 고난을 당하고, 해방 이후 남북 분단의 원인(遠因)이 되기도 합니다.

작품 속 주인공인 이회영을 포함한 6형제는 임진왜란 일등공신인 이항복의 10대손으로, 이 집안에서는 영의정을 9명이나 배출하여 최고의 명문가인 삼한갑족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분들이 소유한 재산이 현시가로 3조원에 이르는 재산가였는데, 일제강점기에 나라의 독립을 위해 부와 명예를 포기한 삶을 살아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한 인물입니다. 부제인 〈통인동 128번지〉는 이회영 선생이 중국으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을 하다가 자금이 부족하여 독립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비밀리에 국내에 잠입하여 은거하던 곳으로 해방 이후에는 이회영 후손들의 본적지가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영국 공연은 런던에서 공연 프로듀서로 활동하고 있는 ‘아이러브스테이지’ (ILOVESTAGE) 김준영 대표가 〈통인동 128번지〉를 보고 영국에 소개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 종로문화 재



공식포스터 © ILOVESTAGE

단측과 공연 계약을 체결하고, 우당 이회영 선생의 90주기 추모일(11월 17일)에 맞추어 양일간 공연을 준비 중입니다. 이번 작품은 영국인을 대상으로 영어로 각색하여, 드라마티그 세바스찬 가드너(Sebastian Gardner), 연출 다니엘 케틀(Daniel Kettle), 음악감독 마이클 크린(Michael Crean), 정대경 작가 겸 작곡가 등 영국 제작진들과 배우들을 주축으로 만들어지고 있으며 관객들은 영국 공연계에서 활동하는 프로듀서, 평론가 등 공연 관계자들과 일부 한국 역사와 문화, 언

어를 연구하는 런던대학(SOAS) 학자, 그리고 공연을 좋아하는 영국 주재 교민들로 구성된 예정입니다.

우당 이회영 선생은 우리나라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빼앗긴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과 재산, 가족까지도 바친 것인데요,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사회지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를 의미하는 서구의 개념이죠. 사회적 신분이 높으면 그에 상응하여 도덕적 의무도 높아진다는 말로 영국의 왕실과 귀족들의 사례

를 많이 인용합니다. 실제 제1, 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의 고위층 자제가 다니던 이튼 칼리지 출신 중 2천여 명이 전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1982년 포크랜드 전쟁 때, 고 엘리자베스 여왕의 아들이며 현재 국왕 찰스 3세의 동생인 앤드루 왕자가 해군 헬리콥터의 조종사로 격전지에서 폭격을 주도했다고 알려져 있죠. 영국의 관객들이 우당 이회영 선생의 국가를 위한 책임감을 이해한다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국 공연은 단순히 한국의 작품을 소개하는 것뿐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한국과 영국 140년 관계를 향상시키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데서, 의미와 보람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낭독 음악극 〈단 한번뿐인 젊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버킹검 궁전 옆에 위치한 “디 아더 팰리스(The Other Palace)”에서 오는 11월 17일, 18일 오후 8시 양일간 소개되는데, 런던의 뮤지컬 전문 교육기관인 마운트뷰(Mountview) 아카데미에서 영어권 시장에 소개되는 한국 뮤지컬의 제작과정, 완성도, 관객의 이해를 모니터링하고 그 성과를 설문조사를 통해 공식 보고서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물론 쇼케이스의 가장 큰 목표는 완성도를 바탕으로 그 이상의 제작 가능성을 보는 것이죠.

코리아 위클리에서는 이런 과정을 함께 목격하실 수 있도록 교민들을 초청해 초대권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응모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1월 17일, 18일중 보고 싶은 날짜와 성함, 연락처를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당첨 되신 분들은 이번 공연의 PR을 맡은 모비우스(사)에서 초청장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uk.ilovestage@gmail.com

더욱 편리해진 New 예약 방식

www.ilovestage.com

이제부터 모든 예약 과정을 실시간 한글로 좌석 도면을 보시면서 더욱 빠르고 안전하게 예약할 수 있습니다.

색상별 가격

객석 위치별 가격

E-티켓 비대면

예약 화면에서 보이는 좌석 도면

£29.55	£39.33	£42.66	£49.22	£62.33	£75.44	£83.26	£88.55
£117.30	£130.41	£163.88	£216.31				

E-티켓 비대면

£29.55 - £39.33

BALCONY 103 available seats

THE PHANTOM OF THE OPERA

WICKED

A NEW MUSICAL THE UNBROKEN STORY OF THE WITCHES OF OZ

글쓴이
김준영
프로듀서

junyoung.kim@ilovestage.com

현 ILOVESTAGE 대표

한국 공연 프로듀서 협회
월간 한국 연극
London Correspondent,
대학로 소극장 축제 프로그래머,
록펠러 재단 및 홍콩 아트센터
아시아 소극장 축제 프로그래머,
월간 한국연극, 금호 아시아나 사보,
객석, 일간지 등 다수 기고.

라이선스, 번역 및 프로듀서
(연극 '2016까지 발렌티나 [김수로 프로젝트 18탄]', 뮤지컬 '조로' [조승우 박건형 주연, 데이빗 스완 연출], 런던 국립 미술관 아티스트 시리즈 1편 뮤지컬 반 고호[김창완 음악])



튀르키예(터키) 성지탐방, 바울이 걸어간 길을 걸으며...

지난 10월 17일(월)~22일(토)까지 재영한인교회연합회(회장 노인구 목사)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튀르키예(이하 터키) 소아시아 일곱 교회 성지탐방을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이동과 활동의 자유가 제한된 상황 가운데 있다가 오랜만에 동역자들과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재영한인교회연합회가 주최하는 성지탐방에 김진산 교수님을 모시고 성지를 심도 있게 탐방하였습니다.

터키 성지탐방 하면 일반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이번 재영한인교회연합회의 터키 성지탐방엔 관점을 조금 바꾸어 '사도 바울이 걸었던 선교의 길'이라는 주제로 개최해 더욱 새롭고 의미가 깊었습니다.

드로아에서 앗소로 가는 길

제3차 선교여행에서 사도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갔습니다. 드로아는 바울의 강론을 듣다가 강론이 길어지자 3층 창가에서 졸던 유두고라는 청년이 떨어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유두고를 살린 사건이 있고 난 후, 사도 바울 일행은 먼저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앗소로 가서 바울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행 20:13)

어떤 이유에서 바울이 홀로 드로아에서 앗소까지 걸어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두고 사건이 있고 난 후, 드로아에서 앗소까지 60km가 되는 거리를 다른 일행들은 배를 타고 갔지만, 바울은 홀로 발로 걸어서 갔습니다. 드로아에서 앗소로 바울이 걸었던 산길을 따라 걸으며, 바울이 걸어간 길과 오늘을 사는 내가 걸어가는 길은 어떻게 같으며 어떻게 다른가를 생각해 보는 정말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갑바도기아와 라오디케아

갑바도기아는 버섯바위로 유명합니다. 특히 30곳 이상의 석굴교회가 있는 지역으로 갑바도기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대부분 옵션으로 열기구 내지는 사파리 관광을 합니다. 우리도 열기구를 이용해 유명한 버섯바위들을 보고 싶었지만, 우리의 목적은 성지탐방인지라 석굴교회가 있는 괴레메 골짜기를 방문하여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묵상하며 많은 교훈을 깨달은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라는 말의 헬라어 뜻은 '공정하게 백성을 다스린다'는 뜻이지만, 이런 뜻에 의해 세워진 도시가 아니라 누군가의 이름이었습니다. 셀류쿠스(Seleucus)왕조 안티오코스(Antiochos) 2세가 기원전 261년과 253년 사이 도시를 재건하면서 자신의 부인인 라오디케(Laodike)의 이름을 따 라오디게아라 했습니다.

위치적으로 라오디게아 북동쪽으로 골로새가 있는데, 골로새 뒤편에는 해발 3,000m의 바바산에서 흘러 내려오는 만년설의 차가운 물을 라오디게아에서 14km수로 만들어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원편의 파묵칼레(히에라볼리) 온천에서 내려오는 뜨거운 물이 9km 흘러 만나는 곳이 라오디게아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로 묘사한 것은 지리적인 표현과 매우 흡사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라오디게아 근처엔 신약성경에 나오는 지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약성경의 '골로새서'의 수신지인 '골로새'(Colossae), 그리고 히에라볼리(Hierapolis)-Pamukkale(파묵칼레)가 있습니다. 목화의 성으로 불리는 파묵칼레(히에라볼리)는 누구나가 보기를 원하는 곳입니다. 파묵칼레

는 사도 빌립의 순교교회가 있는 곳인데 유일하게 도시에서 떨어져 산 중턱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성 소피아사원과 이레네성당

이스там불에 있는 성 소피아 사원은 아홉 개 하늘을 형상화한 건축물로 유명합니다. 소피아 사원의 주인이 된 이슬람교도들은 사원 주위에다 이슬람식 뿔족탑들을 설치했습니다. 내부엔 비잔틴 양식의 모자이크 위에다 노란 페인트를 기독교의 상징들을 감추기 위해 두껍게 칠해 버렸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튀르키예 대통령 에르도안은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모자이크를 흰색 천으로 보이지 않게 가려버렸습니다.

AD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가 개최된 이레네 성당은 십자가 형태의 성당으로 4세기 초까지 아프로디테의 신전이였다가 성당으로 개조된 건물입니다. 교회사적으로 중요한 것은 콘스탄티노플은 초기 교회를 뒤흔들어 놓은 아리우스 이단 논쟁을 종식하고, 삼위일체 교리를 확립한 제1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가 개최된 곳이 바로 이레네 성당입니다.

글을 맺으며
6일 동안 긴 여정의 끝은 처음 출발

했던 이스там불로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했습니다. 성 소피아 사원, 이레네 성당 이 두 건물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일곱 교회 모두는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성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젠 이슬람이 다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는 모두 폐허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필자는 다시 한번 '바울이 걸었던 길'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위해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만약 소피아와 이레네 그리고 일곱 교회들이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차지하며 멋진 교회로 자리잡고 있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교회 건물들이 그 교회에 속한 교인들이 가질 우월성과 영적인 교만함은 우리를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방해하지 않을까요? 이런 관점에서 이번 성지탐방이 '바울이 걸어간 길'을 주제로 갖게 된 것에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전공수 목사
웬블던코너스톤 교회 담임

www.kib.co.uk
Korean Insurance Brokers
KIB보험
믿을수 있는 보험 전문 브로커

- 자동차보험
- 집가재보험
- 각종 상업 보험
- 의료 보험

☎ 020 7847 8630 / 8631 www.kib.co.uk
e-mail : info@kib.co.uk
3rd Floor, 14 Austin Friars, London, EC2N 2HE

갈보리장로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London

주일에배
안내

- 예배시간 : 매 주일 오후 1시
- 예배장소 : 14 Tudor Close, Chessington, KT9 1BL
- 담임목사 : 이강호
- 홈페이지 : www.londoncalvary.com
- ☎ 07766 145 178

코리안위클리 www.kowekly.co.uk

행사 · 모임 · 공지사항
교회행사, 단체 모임, 여러 공지사항 등은
지면광고와 함께 온라인에도 올라갑니다.

생활광고 안내

1회: £ 15
2회: £ 25
3회: £ 30
6회: £ 50
8회: £ 65
12회: £ 90
24회: £ 150

이메일로 광고내용, 게재 횟수, 연락처를 적어 보내 주시면 확인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koweekly@koweekly.co.uk



GREEN FARM
korean style rice cake dessert

☎ 07379 960 460
(주문은 새벽5시-낮12시)

**콩나물
각종 떡 전문**

43 Martin Way, Morden,
Surrey SM4 4AH

시나이 모터스

SYNAI MOTORS



- 정비 전문
- 도색 전문
- 보험·수리
- MOT 대행

0208 241 0836 / 07880 700 492
167 Surbiton Hill Park Berrylands KT5 8EJ

슈퍼맨 런던

당일배송 온라인 한인마트
낮 12시 이전 결제완료시 당일배송가능!
첫 주문시 배송비 무료

www.supermanlondon.com
☎ 07912 649953

런던 우체국 London Parcel Office


한국으로 물건을 보내려면
세관/유럽 배송 문의 환영

www.lpouk.com
020 8569 2588 / 0789 790 2044

Cambridge Maths Academy

케임브리지 대학교 수학 전공 선생님의 온라인 줌 수업
A-level Maths, Further maths, Foundation maths
자세한 수업 안내는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cma-edu.tistory.com/842

☎ 07491906433



MB LAW Solicitors

모든 법률 상담 / 민사 / 형사 / 이혼 / 고용법
/ 비자 / 법인 및 상업 / 개인 및 기업 회생 등

☎ 07424824666



범양 익스프레스

Pumex International
인틱 당일 배송 · 포장 · 픽업
일반 특송 / 구매 · 배송 대행

24시간 상담
☎ 07960 879 234

GCSE, KS3 과학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수학 수업,
GCSE 각 보드별 수업 (AQA OCR Edexcel IGCSE),
13+ 과학 수학, 학교 진도cover, 숙제 봐드리,
런던대 과학교육학 석사박사, 영국 지도경험 20년,
전직교사(여) ☎ 0794 162 5292

인벤토리 청소전문 - 서울클리닝

10년 노하우 인벤토리 청소 전문
처음부터 인벤토리 체크까지
책임지며 훼손된 부분 수리가능

☎ 07947 299 669 / 07432 703 156

UK Top Tour

프리미엄 투어 / 의전 / 공항픽업 / 캡서비스
벤츠 V-Class / E-Class

☎ 07879 405 139 카톡 : kingstonplus
(직원 모집 : 워홀 환영)

◆ 플루트 렛슨·음악이론 렛슨 ◆

Professional Teaching Specialist
전문가가 빠르고 올바르게 가르칩니다.
학생들 그레이드·음악장학생·음악이론 전문.

☎ 0783 468 7828 뉴몰든 파운틴

Total Clean 토탈클린 세탁

세탁·수선 전문
세탁 : 의류, 이불, 커튼 등
명품 의류 수선 전문
115 Kingston Rd, New Malden

☎ 020 8949 7999 (일번지 정육점 바로 옆)

코리아 위클리 본지나 관련된 웹사이트에 실린 광고주의 정체를 어느 정도 확인합니다. 그러나 광고주나 광고의 정확성, 신뢰성에 대해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으며, 서비스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광고, 기타 정보에 대해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본지에 실린 광고에 대한 신뢰 여부는 전적으로 사용자의 책임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코리아 위클리는 광고주와 광고내용, 연락, 제품, 서비스와 관련하여 직접, 간접, 부수적, 징벌적, 파생적인 손해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독자들이 본지에 실린 광고주와 광고 내용 연락이나 제품, 서비스 구입 혹은 계약 이전에 나름대로의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note that any adverts contained in Korean Weekly does not imply a recommendation or endorsement or approval by Korean Weekly Newspaper of any advertising claims or of the advertiser, its product, or services. Korean Weekly reserves the right to accept or reject any advertisement submitted for its newspaper publications and on its websites. While Korean Weekly employs its best endeavours to confirm the identity of the advertisers, it does not attempt to investigate or verify claims made in advertisements appearing in its Newspaper publications and on its websites. Korean Weekly disclaims any liability whatsoever in connection with advertising appearing in its newspaper and on its websites."

수학 물리 과외

서울대학교 계산통계학과졸 20년경력
A level, GCSE, IB, AP, Pre-U, SAT
Further math, STEP, MAT, Olympiad, 경시대회준비
대학수학/통계, 한국수학

☎ 07958 677211

미소하우스 (miso house) 하숙

뉴몰든역 3분거리의 고급 주택, 카드결제 가능,
출장 주재 연수, 집 구하기전 잠시, 최고 욕실룸,
넓은 가족실, 고속 인터넷, 세탁, 조식 한정식,
www.misolondon.com
카톡 ID: misohouse

☎ 0782 333 6807 / 0208 288 9251

어디로 갈까 고민마세요,
정비의 으뜸

A3 MOTORZ MOT

에이쓰리 모터즈

£35
Free Retest
(Mon - Sunday)

튼업 / 타이밍벨트 / 오일교환 / 타이어 교환 · 펌크 / 전기문제

클래식 기타아 / 피아노 / Music Theory

www.duoart.co.uk

ABRSM Grades 1 to 8, All Levels 환영
MA, BMus 음대 전공졸업, 교육경력 25년,
** 온라인 / 오프라인 수업 진행중

☎ 07894 237 044 / 020 8949 8852

편안하고 아늑한 정 하우스

출장, 주재, 가족 여행, 집 구하기 전 임시거주 등
어떤 목적에도 적당한 게스트 하우스,
아늑한 리셉션, 초고속 인터넷, 세탁 서비스,
깔끔하고 맛깔스런 아침 저녁 제공, 카드결제 가능.
뉴몰든역 10분, 집앞 버스 265번, 구 올리브 하우스.

☎ 07908 522 109 카톡 ID : junhouse5



기술자 **염관식**
· 20년 이상 경력 소유
· 한국 자동차정비 자격증 소지자
· 영국 자동차정비 자격증 소지자

22 Wellington Crescent, New Malden KT3 3NE
07540 142 017

